



아들을 내려준다는 관음송자(觀音松子) 연화(年畵)〈왼쪽〉와 시대의 미인들을 표현한 미인도 연화〈오른쪽〉. 중국 연화는 무속부터 세시풍속, 생활상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줬다.



풍속부터 미인화까지 중국 생활상 그린 연화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⑦
한국고판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아름다운 고평들이 시내 곳곳에 위치한 정정현을 뒤로 하고 고판화박물관과 자매결연한 무강연화박물관이 있는 무강현을 향했다. 지난 2006년에 고판화박물관과 무강연화박물관이 교류를 진행하였던 일들이 달리는 버스 차창 너머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경주대학교의 정병모 교수님과 국립민속박물관의 도움으로 생면부지의 북경중앙미술학원 보송년 교수를 만나기 위해 자택인 북경의 왕부징 거리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를 찾아 헤매던 일과 보 교수의 서재에서 중국의 다양한 연화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일, 다음날 보 교수의 자가용을 타고 무강으로 향했던 일 등이 새삼 떠올랐다.

이번 무강연화박물관의 방문했을 때도 현재 중국국가주석인 후진타오 주석이 어린 학생들과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무강연화박물관의 연화박물관을 인출한 연화 작품을 들고 학생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박물관의 영상을 통해 보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문화발전을 중국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전략이 우리의 문화 정책에 비해 한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 연화(年畵)는 중국 문화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으며, 중국 연화의 발생은 한 대로 까지 올라가지만 우리와 친숙한 판화기법으로 만들어진 연화는 내용과 특수성에서 발견된 사미인도와 관우도이며, 이후 다양한 장르와 쓰임에 의해 발전된 연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시절에 까지 발전해 왔다.

연화는 우리나라의 세화(歲畵: 동국세시기에 보면 주로 동지 날 임금이 도화원 화원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신하들에게 동짓날 나눠 주었던 초하룻날 대문이나 집안에 붙였던 다고 한다)와 달리 주로 인쇄술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돼 집집마다 보급됐으므로, 자연스럽게 판화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당나라 때부터 조판인쇄가 유행하기 시작해 아무리 늦어도 송대에는 이미 목판으로 인쇄된 연화가 존재했다. 명대에는 채색조판기술도 성숙되기 시작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량으로 채색판화를 인쇄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문인들이 사용하는 시전지(詩箋紙)에 응용됐으며, 후에 연화의 인쇄에 도입됐다. 농업 경제가 발전하고 장기간 사회가 안정됐던 청대 초기에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궁정의 왕공대신으로부터 민간의 소상인과 심부름꾼에 이르기까지 새해 연화를 사서 붙였다.

연화 생산의 중심지로는 북방의 천진(天津) 양류청(楊柳淸)과 소주(蘇州)의 도화(桃花)는 남북에서 가장 커다란 연화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산둥(山東) 양자부(楊家埠), 개봉 주선진, 하북 무강(武強), 사천(四川) 면죽(綿竹), 산서 임분, 복건(福建)의 장주(漳州)와 천주(泉州), 광둥(廣東)의 불산(佛山), 후난성 소양(邵陽)의 난두(灘頭), 대만 대남(臺南) 등이 연화 산지가 됐다.

각지의 연화는 모두 서로 다른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발전해 왔으며, 중국의 연화도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문에 붙여서 벽사용으로 사용하였던 초기의 단순한 문신연화를 벗어나 풍부하고 다채로운 제재와

내용으로 발전하게 됐다.

중국연화를 간략하게 분류해 보면, 첫 번째로 신상(神像)의 모습으로 명절에 신령에게 제사지낼 때 붙여 사용하도록 제공됐다. 대표적인 연화로는 관음, 재신, 조왕신, 복록수 삼성도 등이 있다. 연화 가운데 가장 일찍 출현한 문신(門神) 양식은 초기에는 귀신과 괴물을 진압할 수 있도록 괴이한 형상으로 그려졌으나, 훗날에는 현실세계에서 무장(武將)의 형상을 흡수해 갑옷을 입은 무문신(武門神)으로 변화돼 집의 대문에 붙여 집을 보호했다.

중국에서는 설을 보내며 문신화를 붙이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풍속으로 발전했으며, 모든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연화가 되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생활의 표현을 둔 풍속화로 표현했다. 온 집안이 다 모여 즐겁게 설을 보내거나, 원소절(元宵節:정월 대보름)에 꽃등(花燈)을 구경하거나, 단오에 용선(龍船) 경기를 하거나, 농사에 풍년이 들어 의식주가 풍족하게 하는 등이 표현됐으며, 이러한 풍속화에는 중국의 지난날의 여러 가지 모습과 풍부한 사회문화에 관한 장면을 담겨져,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소설과 희곡의 즐거움을 표현한 그림(小說戲曲故事畵)으로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백성들은 주로 시비선악과 미추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함축되어 있는 희곡을 통하여 오락을 즐기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을 증가시켰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매우 익숙하여 친밀감이 가득했으므로 소설과 희곡을 표현한 연화는 특별히 환영을 받았다. 연화의 내용에는 유명한 문학작품과 민간의 전설 등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의 도덕심에 중대한 감화작용을 일으켰다고 한다.

연화(年畵), 인쇄술로 다량 생산 보급
중국 판화발전 형성의 한 축 담당
서로 다른 지역적 특색 반영해 발전

다섯 번째로는 장기간 유행한 전통적인 제재로 미녀와 어린이의 모습이다. 미녀는 고대복장의 미녀와 유행복장의 미녀 두 종류로 구분됐으며, 고대복장의 미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에 간 무관(木蘭)이나 적을 죽여 나라에 보답한 무궤이인(穆桂英)등과 같은 여장부로 그려지고, 유행복장의 미녀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채 유행을 따라 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중국에서는 자손과 가문이 영구적으로 발전하기를 중시하였으므로, 어린이를 묘사한 연화는 특별히 환영을 받았다. 어린이는 건강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각종 이야기와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아름다운 축복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는 경전과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經史故事)를 소재로 하였으며, 일부 연화에서는 유가경전에서 내용을 따오기도 했다. 전통미덕을 신앙하거나 효도를 제창하는 이십사효사화(二十四孝故事畵)는 연화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일곱 번째로는 산수와 화조와 연화로 명산대천과 화조종어(花鳥蟲魚)도 연화에서 유행하는 제재였다. 보통 4쪽이 한 조를 이루는 화면을 이용해 화조와 산수는 춘하추동으로 구분돼 그려졌으며, 산수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다.

여덟 번째로는 그림의 형상으로 문자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문자도(文字圖) 연화로 표현됐다. 문자도 중에는 신화의 인물인 팔선(八仙)을 조합하기도 하고, 화조와 산수를 삽입하기도 했으며, 주로 대련을 이루도록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신연화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일 년 내내 집안에 붙여 놓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 게 신연화다. 신연화의 발생은 독일의 폴비츠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루신에 의한 신목판 운동이 전개돼 중국의 계몽운동에 목판이 활용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중국 공산당에서는 연안시절부터 마오쩌둥에 의해 중국 전통연화를 활용해 공산주의 사상 주입교육에 활용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다양하게 발전하게 됐다.

다양한 제재를 통해 현재까지 중국 사람들의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연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무강연화박물관의 방민이 고판학회 회원들에게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제공=고판화박물관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액을 막아준다는 산동지방의 민속 연화. 우리나라의 세화(歲畵)와도 흡사하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제공=고판화박물관